

강화 고려왕릉의 석물 연구

한 나 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 Ⅰ 들어가며
- Ⅱ 강화 고려왕릉의 축조배경 및 석실구조
 - 1. 축조배경 및 현황
 - 2. 왕릉 배치 및 석실구조
- Ⅲ 강화 고려왕릉의 석물 검토
 - 1. 홍릉
 - 2. 석릉
 - 3. 가릉
 - 4. 곤릉
 - 5. 능내리석실분
- Ⅳ 강도시기 석물의 특징
 - 1. 석물의 기능분석
 - 2. 석물 편년문제
 - 3. 강도시기 석물의 특징
- Ⅴ 마치며

2008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1 No. 1

강화 고려왕릉의 석물 연구

한 나 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투고일자 : 2008. 08. 25 / 심사일자 : 2008. 09. 25 / 게재확정일자 : 2008. 10. 10]

국문초록

고려왕릉은 대부분 개성에 위치하여 실견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연구가 미흡하였다. 또한 왕릉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석물에 대한 연구도 통일신라 및 조선시대에 국한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강화도 소재 고려왕릉 5기를 대상으로 축조배경과 현황, 석실구조를 살펴본 다음, 강도시기 왕릉관련 석물의 구조적·도상적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그 결과 강도시기 석물의 특징으로는 구조의 간소화와 규모의 축소를 들 수 있다. 난간석 및 병풍석 등의 시설은 구조적으로 간소화되고 석인상의 크기는 이후 시기에 비해 두드러지게 작다. 또한 도상에 있어서도 석양의 채용 등 일정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강도시기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석물, 석인, 석수, 강화, 고려왕릉, 강도시기

I. 들어가며

왕릉은 지배계급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왕릉축조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가 투입되었고, 많은 공력이 들어가는 국가적 공사였으며, 오늘날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왕릉 연구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고려왕릉은 대부분 북한 개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적과 민간에 의한 도굴로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고 조선왕실에 의해 보수되기도 하여 그 원형을 짐작하기 힘들었던 까닭이다. 따라

서 강화도에 소재하는 강도시기(1232~1270) 고려왕릉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는 고려시대 왕릉제도를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강화 고려왕릉에서 확인되는 '왕릉제도'는 왕릉의 입지조건, 봉분의 규모와 호석구조, 능 앞에 배치되는 석물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석물'이라는 것은 왕릉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석물(石物)'의 사전적 정의는 '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물건'으로 무덤과 관련된 돌로 만든 조각품을 이른다¹⁾. 석물의 종류는 조각의 대상에 따

1 석물은 '돌거리', '墓石', '石儀', '陵墓石刻', '墓儀石物'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조선시대 이래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石物'이다. 이경순, 1995, 「조선전기 능묘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능묘석물', '외호석물', '묘식조각', '묘식석물'이라고도 한다. 이근직, 2006, 「신라왕릉의 기원과 변천」, 영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라 석인(石人), 석수(石獸), 석주(石柱), 석등, 상석(石床) 따위가 있으며 병풍석 등으로 나타나는 호석구조 역시 석물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왕릉에서 석물이 등장²⁾하는 것은 중국 한(漢)대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³⁾ 통일신라에는 능묘제도로써 정착되었고 고려에도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왕릉 관련 석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제까지 진행된 연구는 조선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로 국한되어 있으며⁴⁾, 그 중에서도 호석 및 난간석은 석물로서 인식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대상으로 연구된 사례도 적다.

본고는 강화도에 소재하는 강도시기(江都時期) 왕릉의 석물을 기존 발굴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석물'의 대상으로 석실 개석 상부에 위치하는 8각 혹은 12각 구조물 및 난간석 등 호석도 포함시켰음을 밝혀둔다.

II. 강화 고려왕릉의 축조배경 및 석실구조

1. 축조배경 및 현황

'강도시기'의 배경에는 몽고족의 정복제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당시 몽고지방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징기스칸은 부족단위로 흩어져 있던 몽고족을 통일하여 1206년(희종 2) 대칸에 추대되었고, 동부아시아는 물론 중국대륙을 석권하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제압하는 세계적 규모의 대 정복제국을 건설하였다.

고려는 몽고에게 쫓겨오는 거란인을 도와 협공한 때인 1218년(고종 5)부터 공물을 강요당하였으며, 몽고의 사신 著古與가 1225년(고종 12) 귀국 도중에 살해된 사건을 구실로 1231년(고종 18) 1차 침입이 있었고 1232년(고종 19)에 당시 집권자인 催瑀가 중심이 되어 수도를 강화로 옮기어 대몽항쟁을 결의한다.

이후, 13세기 후반에는 당시 집권자인 崔瑄가 피살되고 60여년간 고려를 지배해오던 최씨일문이 몰락하면서 1260년 원(몽고) 세조와 화평조약을 맺는다. 그리고 1270년(원종 11) 개경으로 환도하였고, 강화 천도부터 개경 환도까지 강화도에 머물렀던 이 39년이 '강도시기(江都時期)'이다.

강도시기에 강화도에 축조된 고분 중 현재 확인되는 것은 왕릉 2기, 왕비릉 2기, 그리고 피장자를 알 수 없는 다수의 석실분으로 대표적인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중 4기의 고분이 발굴조사되었는데 도굴 등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훼손되고 결실되었다.

-
- 2 이들은 상설(象設)이라고도 하는데, 그 유래는 진시황릉의 도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순장과 부정품이 변화된 양상으로 보여진다. 즉, 사람과 동물을 산채로 순장하는 관습 대신 그 형상을 토우나 석상으로 만들어 함께 묻게 되었고 이 부정품이 무덤 밖으로 나오면서 보다 견고하고 오래가는 석물로 바뀐 것이다. 김성복, 1992, 「조선시대 문인석에 관한 연구 - 왕릉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p.2.
이 외 여우라는 괴수가 묘를 파고 시체를 해치므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석호를 세운 것이 석물의 시초라고도 하며, 묘를 보호하기 위한 사신도, 십이지신상의 발달, 풍수지리의 유행 등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묘의 석물이란 제체를 갖추게 되었다고 보았다. 김성희, 1985, 「한국 문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p.9.
- 3 우리나라 석물에는 중국에는 없는 병풍석이나 난간석, 장명등, 상석의 설치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통일신라 이후부터 생긴 특별한 제도로 중국의 능제에서 볼 수 없는 특색이다.
고유섭, 1993, 「고려왕릉과 그 형식」, 『고유섭전집』 4 송도고적 - 29, p.271.
김은선, 2002, 「조선후기 능묘 석인상 연구 - 17~18세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p.9.
- 4 능묘 관련 석물에 대한 기존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원룡, 1959, 「이조왕릉의 석인연구 이조조각양식의 변천」, 『아세아연구』 2권 2호
유영교, 1976, 「조선왕조후기 석인·석수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경원, 1982, 「통일신라시대의 묘의석물·석인·석수연구」, 『고고미술』 154·155.
배윤수, 1983, 「조선시대 왕릉 석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성희, 1985, 「한국 문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찬우, 1986, 「조선시대 문무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홍경진, 1987, 「조선전기 왕릉 및 석조물 양식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성복, 1992, 「조선시대 문인석에 관한 연구 - 왕릉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경순, 1995, 「조선전기 능묘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임영애, 2001, 「개성 공민왕릉 석인상 연구」, 『강좌 미술사』 제17호
신광철, 2005, 「조선시대 왕릉의 석인 석수 조형성 연구」,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근직, 2006, 「신라왕릉의 기원과 변천」, 영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은선, 2006, 「조선후기 왕릉 석인 조각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49호
이정선, 2008, 「조선 전기 왕릉 석인석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표 1〉 강화도 소재 고려 고분의 대표적 현황

| 연번 | 유적명 | 피장자 | 축조시기 | 기타 |
|----|--------|---------------|------|---------------|
| 1 | 홍릉 | 제23대 고종 | 1259 | |
| 2 | 석릉 | 제21대 희종 | 1237 | 발굴(2001) |
| 3 | 가릉 | 제24대 원종비 순경태후 | 1236 | 발굴(2004) |
| 4 | 곤릉 | 제22대 강종비 원덕태후 | 1239 | 발굴(2004) |
| 5 | 능내리석실분 | 미상 | | 발굴(2006~2007) |
| 6 | 인산리석실분 | 미상 | | |
| 7 | 이규보묘 | 이규보 | 1241 | |
| 8 | 허유전묘 | 허유전 | 1323 | 발굴(1988) |

본고는 석릉, 가릉, 곤릉, 홍릉, 능내리석실분 5기의 왕릉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⁵⁾. 능내리석실분의 경우, 피장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 가릉의 북편 인근에 위치하고 개석과 문비석을 포함한 석실의 규모가 가릉보다 크기 때문에, 왕릉급 고분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발굴 결과, 석실상부구조물·건물지가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석실내부에서 왕비를 상징하는 봉황문 장식⁶⁾이 확인되어 왕비릉일 것으로 추정되었고⁶⁾, 본 연구대상에도 포함시켰다.

2. 왕릉 배치 및 석실구조

석물은 개별적인 개체로서 만이 아니라 왕릉을 형성하는 구조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석물의 종류인 호석, 난간석, 석인, 석수 등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 왕릉을 완성한다. 따라서 석물을 왕릉제도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왕릉의 배치 및 석실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 왕릉은 위치선정, 능역의 설정, 석물의 배치 등에 정형성을 가지고 있었다. 능역 구조는 폭 10間 내외, 길이 20間 내외의 장방형으로 구획하여 좌, 우, 뒤 3면으로 곡장을 두르고, 그 앞으로 4단을 만드는데, 각 단의 앞은 석벽을 쌓았다.

제1단에는 봉분이 있고, 봉분 하단을 반구형으로 병

풍석을 둘렀다. 병풍석은 12면으로 12지신상이 새겨진 경우도 있다. 바깥에 난간을 둘렀으며, 석수와 정면에 장방형 석상이 있고, 좌우에 망주석이 있다. 제2단은 장명등과 문인석, 제3단은 좌우 무인석, 제4단은 경사면으로 정자각과 능비가 있다⁷⁾. 다만 강화 고려왕릉은 문인석과 무인석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배치는 공민왕릉 이후에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왕릉의 중심인 석실은 봉토로 덮히어 발굴조사된 것에 한하여 그 구조가 파악된다. 석릉, 가릉, 곤릉, 능내리석실분은 발굴조사 결과 일정한 정형성이 확인되었다.

1. 황구식 석실분이다.
2. 황구부와 맞닿은 동·서벽의 끝단에 문주석을, 사이 바닥에는 문지방석을 설치하였다.
3. 천장은 판석 3매를 이용하였다.
4. 석실 동·서벽석의 최상단과 최하단에는 방형의 홈을 마련하였다.
5. 석실내부 바닥 중앙에 정방형의 관대를 설치하였다.
6. 석실입구는 1매의 판석으로 폐쇄하고, 문비석(폐쇄석) 전면에는 보강석을 설치하였다.
7. 문주석 외곽으로 장대석을 이용하여 날개벽석을 설치하였다.
8. 석실 상부에 8각 혹은 12각 호석을 설치하였다.

정형성 이외에 구조적 차이도 확인된다.

5 이들은 왕릉 2기, 왕비릉 2기, 피장자를 알 수 없으나 왕비릉으로 추정되는 석실분 1기이다. 본고에서는 왕릉급 고분의 구조 및 석물을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들을 편의상 '강화 고려왕릉'으로 칭하고자 한다.
 6 능내리석실분에서는 석실내부에서 봉황문이 새겨진 은제도금장식이 확인되어 피장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봉황은 왕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상 속의 동물이다. 이 봉황문은 은제도금장식은 얇은 은판에 봉황문을 타출하였다. 여러 파편들로 문양의 전체적인 구성 및 형태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동근 테두리선에 은못이 박혀있는 것으로 보아 동근 형태로 목관 등에 못으로 박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능내리석실분에서는 이 외에도 2마리의 봉황문이 타출된 은제장식미도 출토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7 고유섭, 1993, 『고려왕릉과 그 형식』, 『고유섭전집』4 송도고적 - 29, p.270.

1. 석릉, 곤릉, 능내리석실분은 지하식 구조이나 가릉은 다른 3기의 왕릉과는 다른 구조이다. 3기의 왕릉이 산 능선 위에 경사면을 이용하여 능역을 조성한 반면 가릉은 평탄면에 가까운 비교적 완만한 경사에 위치하였으며 지상식이다. 석실 주변으로 부정형 할석을 이용하여 적석하였다.
2. 석실내부 벽석의 축조방법은 석릉, 곤릉이 부정형 할석들을 이용한 반면, 가릉과 능내리석실분은 가공된 장대석을 이용하고 있다.
3. 문비석 보강에 있어 석릉은 1매의 대형 할석을 이용하여 문비석의 아랫부분을 괴었고, 뒤를 이어 축조된 곤릉은 2개 이상의 대형 할석을 이용하였다. 지상식인 가릉은 별다른 시설 없이 문비석 전체를 할석과 흙으로 보강하였다. 능내리석실분은 1매의 부정형 장대석을 비스듬히 세워 넣어 문비석을 괴고 있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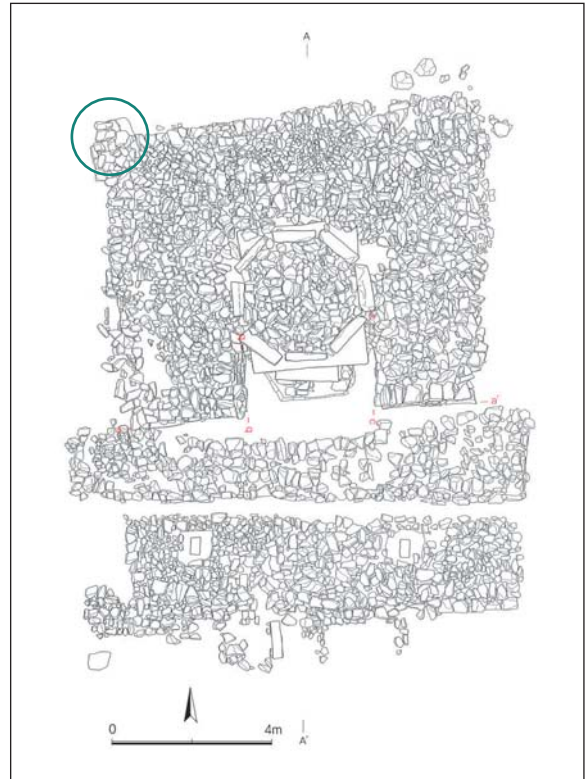
〈사진 1〉 석릉 석실상부 8각 호석 및 난간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강화석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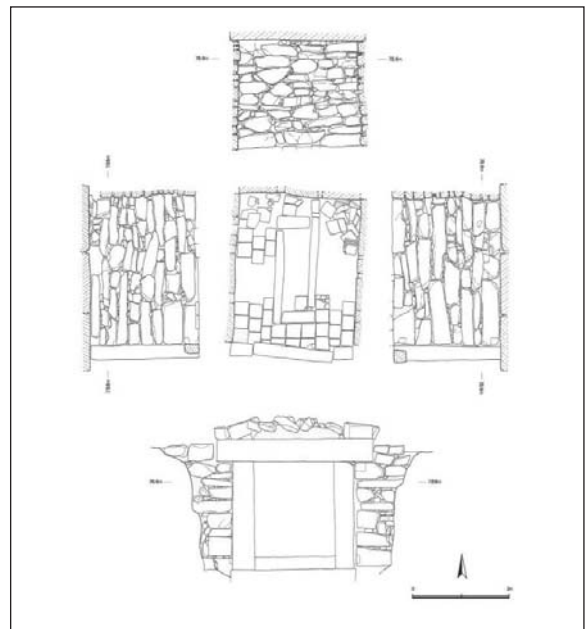
〈사진 2〉 능내리석실분 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4. 석릉에서만 유일하게 곡장과 8각 구조물(호석) 사이에 부석시설이 확인되었다. 전면적으로 지름 50

cm 내외의 부정 타원형인 납작한 판석으로 깔아 부석시설을 마련하였고 사이사이를 갈색사질토로 충진시켰다.



〈그림 1〉 가릉 유구 전체 평면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그림 2〉 곤릉 석실 평·단면도 및 입구 입면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표 2〉 강화도 소재 고려왕릉의 구조적 특징 비교표

| 구분 | 가릉 | 곤릉 | 석릉 | 능내리 석실분 |
|---------------------|-------------|-------------|-------------|------------------|
| 석실구조 | 지상식 | 지하식 | 지하식 | 지하식 |
| 석실장축방향 | N-S | N-S | N-S | N-S |
| 석실크기(cm) (길이×너비×높이) | 255×170×175 | 330×245×220 | 330×220×230 | 260×196×211 |
| 관대크기(cm) (길이×너비) | 205×65 | 215×85 | 185×40 | 225×108 |
| 석실내부시설 | 무 | 바닥전 부설 | 무 | 무 |
| 벽석사용석재 | 가공장대석 | 미가공할석 | 미가공할석 | 가공장대석 |
| 문주석 및 문지방석 | 설치 | 설치 | 설치 | 설치 |
| 개석상부시설물 | 8각 | 12각, 난간석 | 8각, 난간석 | 12각(추정), 난간석, 석수 |
| 벽석 최상하단 방형홀 | 유 | 유 | 유 | 유 |
| 개석갯수 | 3 | 3 | 3 | 3 |
| 가릉분 | 적석 후 봉토 | 봉토 | 봉토 | 봉토 |
| 곡장 | 무 | 미확인 | 유 | 유 |
| 건물지 | 무 | 유 | 무 | 유 |

III. 강화 고려왕릉의 석물 검토

이상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진 강화 고려왕릉에서 확인된 석물의 출토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3〉.



〈사진 3〉 석물 배치상태

1. 홍릉

1) 석인상 (1 : 127×40×19cm, 2 : 128×49×24cm, 3 : 130×33×20cm, 4 : 110×40×22cm)

3단으로 구성된 홍릉은 제1단에 봉분 3기, 제3단에 상석 및 석인상 4기, 묘비가 있다. 상석은 후대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석인상은 2쌍이 동서방향으로 서로 마주보며 위치하고 있다. 모두 문인석으로 관모를 쓰고 홀을 들고 있으며 도상은 비슷하다.



〈사진 4〉 석인상1(북서)



〈사진 5〉 석인상2(동서)

〈표 3〉 강화 고려왕릉 석물 출토현황

| 연번 | 유적명 | 호석 | 난간석 ⁸⁾ | | | 석수 | 석인상 | 석등 | |
|----|--------|---------|-------------------|------|-----|--------|-----|-----|-----|
| | | | 족석 | 동자석주 | 대석주 | | | 옥개석 | 하대석 |
| 1 | 홍릉 | | | 2매 | | | 4기 | | |
| 2 | 석릉 | 8각 | 2매 | | | | 2기 | | |
| 3 | 가릉 | 8각 | | 1매 | | 석호 2기 | 2기 | 3매 | 3매 |
| 4 | 곤릉 | 12각 | 17(개체수 확인 어려움) | | | 석양 | 3기 | | 2매 |
| 5 | 능내리석실분 | 12각(추정) | 4매 | 5매 | 2매 | 해태, 석구 | | 1매 | |

8 봉분 주변으로 돌리는 난간석은 발굴조사보고서 등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어왔다. 본고에서는 『고유섭전집』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로로 돌리는 것을 竹石, 竹石을 받치는 것을 크기에 따라 大石柱, 童子石柱로 구분한다.



〈사진 6〉 석인상3(북동)



〈사진 7〉 석인상4(남동)

2) 동자석주 (1 : 74×25cm, 2 : 75×25cm)

봉분이 있는 제1단은 장대석으로 축조되었는데, 이 중 동자석주가 2매 확인된다. 후대에 동자석주를 기단의 부재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형태는 능내리석실분의 것과 비슷하며 상면에 죽석을 끼우기 위해 원통형으로 가공한 흔적이 확인된다.

2. 석릉

1) 8각 호석(장대석 길이 100cm)

석릉 석실개석(천장석) 상부는 명갈색사질층으로 약 5cm가량 편평하게 다짐처리한 후, 그 위에 가공한 장대석을 이용하여 8각형의 구조물을 시설하였다. 장대석 8매를 잇대어 놓았는데 내면은 거칠게 다듬었으나 외면은 상당히 정성들여 치석(治石)하였고, 양 끝을 각지게 사면(斜面)처리 하였다. 8각 구조물(호석)은 외면을 기준으로 할 때 동서 2.7m, 남북 2.6m(추정)의 규모로 개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서쪽의 장대석 하부에는 잡석을 받쳐 동쪽 장대석 상부와 높이를 맞추었다.



〈사진 4〉 석릉 석실상부 8각 호석 및 난간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강화석릉』)

2) 난간석 (140×20cm)

난간석(죽석)은 봉분조사 과정에서 북편 가장자리에 서 2매가 확인되었으며 양 끝이 사면처리되어 있다. 와편과 함께 봉분 북쪽 및 북동쪽 부토상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초축 당시의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9〉 석인상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강화석릉』)



〈사진 10〉 석인상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강화석릉』)

3) 석인상⁹⁾(1 : 138×59×39cm, 2 : 115×68×40cm)

석인상 1은 1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 담장 앞쪽에 전방을 향하고 있어, 2단 동편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석인상과는 다른 배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풍화 암반토 상면에 있으며 주위에는 20~30cm 내외의 막돌로 둘러놓아 지지대의 역할을 하였는데, 하부구조를 보았을 때 원래의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석인상의 재질은 화강암이며 도상적 특징은 동일하다. 머리 위는 낮고 간결한 판모를 쓰고 있으며 두 손에는 흠을 들고 있고 눈썹과 입은 얇게 조각하고 있으나 코는 비교적 높고 도드라지게 양각하였다. 석인상 1은

9 석인의 명칭에 대해서는 문인석은 文石, 文人石, 文人像, 文人石像, 兩班石, 將軍石 등으로 불리었다. 兩班石이란 경기지방 촌로들이 쓰는 용어이다. 김성희, 1985, 『한국 문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p.3.
10 관련 보고서에서 이 석인상은 석릉과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1974년에 이루어진 복원·정비시 주변에서 수습하여 현재 위치에 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강화석릉』, p.38.

머리와 몸체가 분리되어 있고 단절된 면도 서로 어긋나 있으며 몸체는 장대석과 같은 형태로 머리와는 완전히 다른 부재로서 동일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가름

1) 8각 호석(장대석 길이 110cm)

석실 개석 상부에는 시설한 8각 구조물(호석)은 석릉과 같다. 전체적인 중심 길이는 320cm로 장대석 외면을 기준으로 볼 때 동서는 개석의 범위를 살짝 벗어나 있다. 석릉과 다르게 8각 호석 내부에 길이 20~40cm의 부정형 할석을 가득 채워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2단 이상으로 채워 올렸고 중심부는 한 단을 더 올려 8각 호석보다 10cm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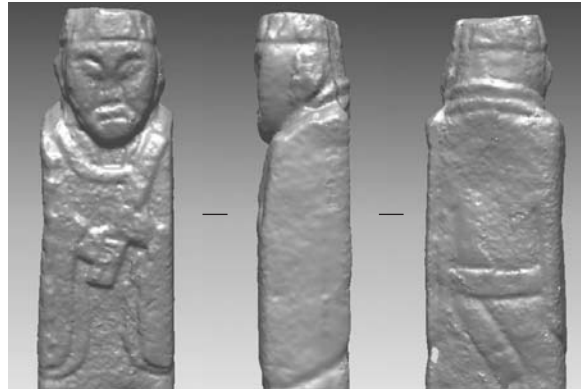
2) 석인상 (1: 163×42×24cm, 2: 166×44×24cm)

가름은 석실 전면에 위치한 제3구역에 석인상 1쌍이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제3구역을 구분하는 기단석과 석인상 하부에서 시멘트 기초가 확인되었고, 이로 보아 1970년대 보수정비 과정에서 시설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석인상이 위치한 단은 제토 결과, 동서 920cm, 남북 250cm 규모의 석축 단으로 가장자리는 2단으로 쌓았고 윗단을 들여쌓기 하였다.



<사진 11> 석인상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석인상1(서편)과 석인상2(동편)은 사각기둥 형태로 눈, 코, 입의 표현이 거칠다.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옷은 관복을 입고 있으며 홀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표현은 단순하다. 허리에 각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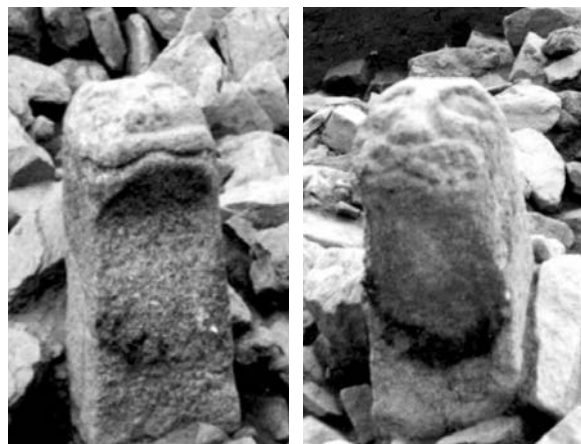
<그림 3> 석인상2 (국립문화재연구소, 3D 스캔자료)

3) 석수 (1: 83×32×30cm, 2: 94×33×28cm)

가름은 조사전 봉분의 북동과 북서에 석수가 각 1기씩 놓여 있었는데, 석수1(북서)과 석수2(북동)는 범을 형상화한 석호로 보이며 몸체는 사각기둥 형태로 얼굴만 표현되었다.



<사진 12> 석수배치 상태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사진 13> 석수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사진 14> 석수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4) 동자석주 (90×36×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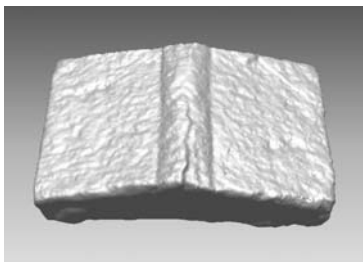
봉분 서편에 진열되어 있는 동자석주는 사각기둥 형태로 상부에 돌을 띠 두 개를 돌리고 죽석을 끼울 수 있는 홈을 마련하였다.

5) 하대석 및 옥개석 (하대석1 : 20×54×54cm, 하대석2 : 22×64×70cm, 하대석3 : 22×62×62cm), (옥개석1 : 35×96×62cm, 옥개석2 : 28×96×62cm, 옥개석3 : 28×94×80cm)

봉분 서편에는 이 외 석등의 자재로 보이는 하대석 및 옥개석이 전시되어 있었다. 하대석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하대석 2는 할석을 거칠게 다듬고 내부에 길이 24cm의 사각형 비좌를 마련한 형태이다. 하대석 1과 하대석 3은 옆면에 복련을 새겼는데 하대석 3은 표현이 밋밋하지만 하대석 1은 보다 세밀하게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옥개석은 밑면, 옆면은 편평하게 다듬었으며 상면이 지붕형태이다. 옥개석 1은 옆면 상부 테두리에 연주문을 돌리고 아래에 안상을 새겼다.



〈그림 4〉 하대석 (국립문화재연구소, 3D스캔자료)



〈그림 5〉 옥개석 (국립문화재연구소, 3D스캔자료)

도가 흐트러진 상태로 노출되었으나 전체적인 형상은 12각형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중심 길이는 370cm로 장대석 외면을 기준으로 볼 때 동서는 개석의 범위를 살짝 벗어나 있으며 호석 내부는 부정형 할석을 가득 채워 놓았다.



〈사진 15〉 석실상부 12각 호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사진 16〉 출토 석물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사진 17〉 하대석1,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4. 곤륜

1) 12각 호석 (장대석길이 1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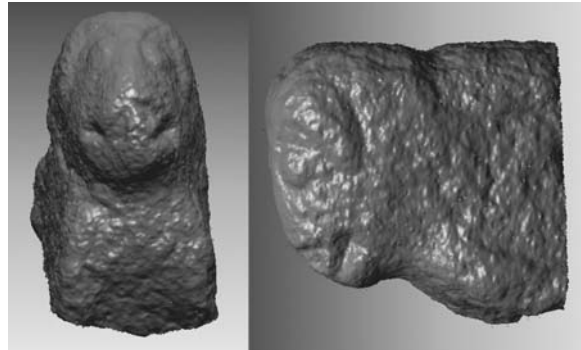
곤륜 석실 개석 상부에 시설한 12각 구조물(호석)은 장대석 8매가 아닌 12매를 잇대어 놓았다는 점을 빼고는 동일하다. 장대석이 대부분 원위치를 이탈하여 각

2) 죽석 (길이 90~100cm)

죽석은 석실 주변, 석실내부 등에서 수습되었다. 수량은 총 17개이나 절반이상이 결실된 것으로 정확한 개체수는 확인할 수 없다. 동자석주에 걸치는 양끝 모서리에 한 면을 편평하게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3) 하대석 (1 : 24×52×60cm, 2 : 22×38×56cm)

석실 묘도부 도굴갱에서 하대석 2매가 수습되었는데, 도굴과정에서 석실 묘도부에 12각 호석 내부 채움석 및 하대석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하대석 1은 세 조각으로 파손된 형태로 옆면에 복편을 새기고 원형의 비좌를 마련하였다. 하대석 2는 두 조각으로 파손되었고 한쪽 면이 거칠게 다듬어져 있으며 원형의 비좌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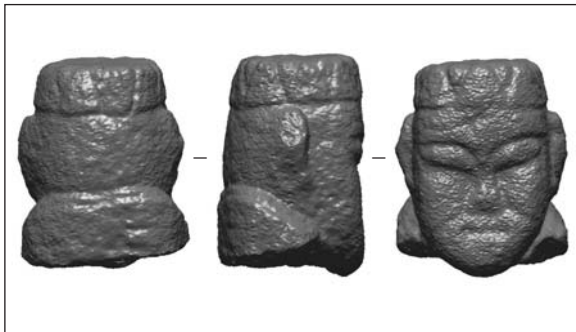
〈그림 7〉 석수 (국립문화재연구소, 3D스캔자료)

4) 석인상 및 석수 (석인상1 : 46×36cm, 석인상2 : 40×33cm, 석인상3 : 41×37cm, 석수 : 16.5×8.9cm)

석실전면 기단석축열과 정자각지 조사과정에서 석수와 석인상 머리 4기가 수습되었다. 석수는 석양(石羊)으로 머리만 잔존하며 역삼각형의 얼굴에는 눈, 입, 뿔이 표현되어 있다. 석양은 피장자의 명복을 빌고 귀신이나 잡귀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인상은 머리만 잔존한다. 눈, 코, 입의 표현이 서역인과 같으며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있다. 세 개의 석인상은 도상이 동일하나 크기와 얼굴 표현이 다소 차이가 있다.



〈사진 18〉 석인상1 〈사진 19〉 석인상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그림 6〉 석인상3 (국립문화재연구소, 3D스캔자료)

5. 능내리석실분



〈사진 20〉 난간석 및 12각 호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1) 12각 호석 (추정, 장대석길이 1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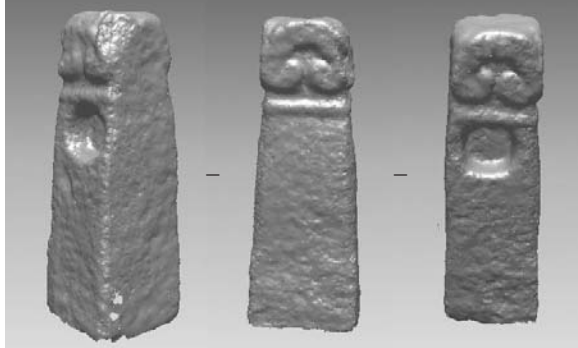
석실 개석 상부에 시설한 구조물(호석)은 석릉의 것과 동일하다. 장대석은 7매만 잔존하지만 놓인 각도 등으로 보아 12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난간석 (죽석·동자석주·대석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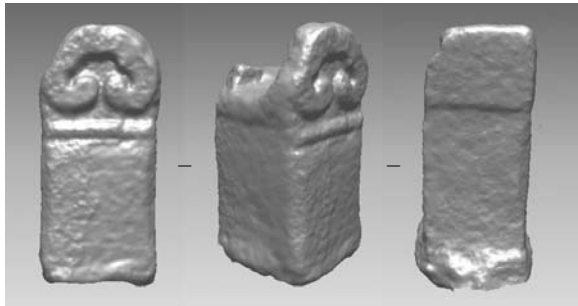
(죽석 : 50~116cm, 동자석주 : 60~84×29~34cm, 대석주 : 100×31~32cm)

죽석은 석실상부에서 4매, 석실내부에서 2매가 출토되었다. 모두 길쭉한 원주형으로 양끝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었다. 죽석을 받치는 기능을 하는 동자석주는 사각기둥 형태로 상부에 죽석을 끼울 수 있는 원통형의 홈을 마련하였다. 상부 1면이 모두 결실되어 확인할 수는 없으나 바깥쪽으로 향하는 면은 운문(雲文)을 조각하고 봉분쪽으로 향하는 면은 문양을 조각하지 않거나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석주는 석실개석을 중심으로 동서에서 각각 1매씩 확인되었는데, 죽석을 끼우는

직경 16cm의 원형 투공이 양쪽에 있으며, 투공이 있는 면의 상부에 운문을 조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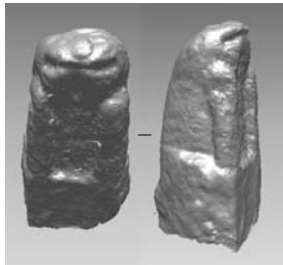
〈그림 8〉 대석주 (국립문화재연구소, 3D스캔자료)



〈그림 9〉 동자석주 (국립문화재연구소, 3D스캔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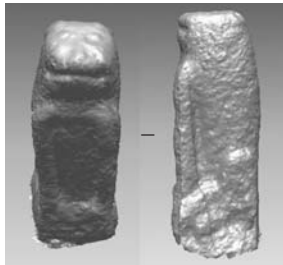
3) 석수 (1 : 90×35~44cm, 2 : 94×26~34cm)

능내리석실분 석실상부 북서, 북동편에는 석수가 1기씩 난간석 밖 모퉁이에 능 바깥을 향하여 배치되어 있었다. 석수1(북서편)은 머리 가운데에 반달형의 홈이 파여진 것으로 보아 뿔이 표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상의 동물인 해태(□豸) 혹은 석호의 변형된 형태로 추정된다. 석수2(북동편)는 눈, 코, 입의 표현이 석구(石狗)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석수1

(국립문화재연구소, 3D스캔자료)



〈그림 11〉 석수2

(국립문화재연구소, 3D스캔자료)

4) 옥개석 (21×88×60cm)

석실상부 곡장 내 북동편에서 옥개석 1매가 엮어진 채로 수습되었는데 모서리가 일부 파손되었다. 형태는 가릉 출토품과 같다.

IV. 강도시기 석물의 특징

강도시기 조성된 왕릉의 석물로 확인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5기의 왕릉 석물에 불과하다. 제한된 자료이기는 하나 이들 석물을 기초자료로 하여 ‘강도시기’ 석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석물을 기능에 따라 분석, 분류하고, 강화 고려왕릉의 석물의 편년문제를 정리한다.

1. 석물의 기능분석

석물은 석실을 중심으로 능역에 배치되는 보조적인 존재이다. 즉 석물은 특정한 용도를 지닌 채 각각의 위치에 배치되었으며 그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4기의 왕릉은 석실상부에 8각 혹은 12각의 호석을 안치하였는데, 각 호석은 봉분을 보호하고 장엄하기 위한 1차 보호시설로 보여진다. 즉 봉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봉토의 범위를 한정지어 주는 기능적 측면이 강한 호석(護石)으로서 존재한다.

8각 혹은 12각 호석 바깥으로는 난간석(죽석·동자석주·대석주)이 둘러진다. 석릉, 곤릉, 능내리석실분 능역 내에서 난간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¹¹⁾ 강도시기 왕릉은 난간석을 시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각 혹은 12각 호석이 봉분 자체를 보호하는 1차 시설이라면 난간석은 봉분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2차 시설, 외호시설(外護施設)로서 존재한다.

8각 혹은 12각 호석과 난간석은 봉분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기능성 및 석실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구조적 측면이 강하다. 반면 왕릉의 신도에 배치되는 석인상·석수·상석 등은 이들과는 구분되는 성격 가진다. 이들은 왕릉을 수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의 두 가지 석물과 같다. 그러나 기능적·구조적 측면보다는

11 가릉은 석실구조가 지상식 적석구조로서, 난간시설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봉분 서면에 전시된 난간석(대석주)은 봉분과 관련없는, 인근 석실분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제의적 성격이 강하다.

2. 석물 편년문제

세가지 성격으로 분류되는 석물 중 석인상, 석수, 상석 등은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여 왕릉축조 당시의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부는 조선시대 혹은 근·현대 보수·정비과정에서 주변에 방치된 고분의 것을 뽑아 왔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석릉 석인상은 하부에서 시멘트 기초가 확인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가릉·곤릉의 것과 도상이 구분되며 조각기술은 조악한 편이다. 또한 조선시대 문헌기록인 『麗朝王陵謄錄』¹²⁾에도 “겨우 능 형태가 남아있다”로 석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석릉과는 관계 없이, 1970년대 석릉을 보수하면서 주변 석실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릉 석수는 왕릉축조 당시의 것으로 보이나 원위치에 의문이 남는다. 석수1(북서)은 적석시설 제2단의 끝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석수2(북동)는 보다 남쪽으로 내려온 지점에 놓여 있었다. 이들 석수는 적석시설의 일부를 파내고 안치해 놓았으나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 영성하게 놓여져 있었고, 석실을 중심으로 볼 때 동서 축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후대에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능내리석실분에 있던 것을 뽑아온 것이라는 인근 노인들의 전언도 있었으나 본래의 위치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릉 적석시설 북서편 모서리에서 직경 111cm의 남북방향의 긴 타원형의 돌출된 적심석군이 확인되었는데, 20~45cm 길이의 부정형 할석을 사용하여 상면을 편평하게 놓아 석수의 원위치였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¹³⁾ (그림 1). 또한 능내리석실분 출토 석수와 가릉 출토 석수는 그 조각기술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가릉 석인상은 하부에서 시멘트 기초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각양상이 곤릉의 것과 유사하고 『麗朝王陵謄錄』에 당시 “석물이 흩어져 묻혀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가릉 축조 당시의 것이나 이후 폐기되어 묻혀있던 것을 1970년대 보수하면서 수습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곤릉 석인상 및 석수는 왕릉 축조 당시에 시설되었다가 후대에 방치되면서 묻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릉은 발굴되지 않아 석인상 하부구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麗朝王陵謄錄』에는 당시에 4기가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소위 洪陵이라고 일컬으며, 본부(本俯)에서 서쪽으로 五里쯤에 있다. 또, 난간은 竹石 여덟 개, 석수 세 쌍, 장군석 네 구(四軀)가 남아 있다. 정자각 및 曲牆 그 터 또한 전과 다름없고, 嘉陵은 본부 남쪽 삼십리쯤에 있으며 석수 한 쌍, 난간축석 1개, 臺石 2개가 남아 있다. 그 나머지는 석물은 각양각색으로 흩어져 묻혀있으며, 영역이 광대하니 白의 땅이다. 碩陵 및 坤陵은 릉 형태가 겨우 남아 있다. 정자각 터 또한 전과 다름없고, 능 위 전면 길 석문은 노출되어 있으며, 白乎 등의 안위는 보지 못했다. 먼저 네 부분을 本府에 붙여 보수(修補) 하였다. 사릉 위에는 전 왕조릉임이 명시되어 있다.” 『麗朝王陵謄錄』

3. 강도시기 석물의 특징

1) 8각 혹은 12각 호석

강도시기 석물의 특징 중 하나는 구조의 간소화이다. 석실 위로 올려진 8각 혹은 12각 호석은 구조와 기능적 측면으로 볼 때, 병풍석이 퇴화된 형식으로 추정된다. 이전시기 병풍석의 사례는 신라왕릉과 개성 소재 고려왕릉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2지신상을 새긴 12개의 탕석과 면석, 감석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관련 논문¹⁴⁾에서는 신라왕릉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형식구분을 하여 놓았는데, 12지신상을 새긴 병풍석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전 현강왕릉이다. 전 현강왕릉은 길이 60~120cm의 장대석을 4단으로 축조하고 외호석 안쪽으로 인두대의 할석으로 내호석을 쌓았는데, 곤릉의 12각 호석 내부채움석과 같은 개념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성 소재 고려왕릉 역시 단순화한 병풍석의 사례가 있다. 왕건왕릉, 고릉, 7릉떼 등에서는 탕석, 면석,

12 仁祖16年-肅宗16年(1638~1690)

13 북동편 모서리에서는 결실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다.

14 이근직, 2006, 「신라왕릉의 기원과 변천」, 영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갑석을 갖추고 12지신상을 새긴 병풍석을 시설한 것으로 언급되어있으나 온혜릉은 2.3m 길이의 가공한 화강석을 쌓고, 바깥면에 12지신상을 조각하는 식의 호석 구조를 갖추었다(표 4). 12개의 가공된 화강석을 연이어 12각형으로 놓는다는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온혜릉과 강화 고려왕릉의 12각 구조물은 병풍석의 퇴화된 양식으로 보여진다.



〈사진 21〉 일제 강점기 고종 흥릉 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강화석릉』)

또한 『조선고적도보』 수록 일제강점기 고종 흥릉 사진에서는 12각 구조물의 기능적 측면이 확인된다. 고종 흥릉은 강화도에 소재한 강도시기 왕릉으로 8각 혹은 12각 구조물로 보이는 장대석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구조물이 봉분을 보호하려는 기능적 측면이¹⁵⁾ 강조되었으며, 병풍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도시기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되는 것은 몽고침략이라는 외침으로 인한 당시의 불안한 사회·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조선시대 광릉(세조릉, 1468)은 민폐를 줄이고 검소함을 숭상하자는 의미로 석실과 병풍석을 없애는데, 석인 등 석물은 유지하였다¹⁶⁾. 왕릉축조를 간소하게 계획할 때, 가장 먼

〈표 4〉 강화도 및 개성 소재 왕릉 병풍석 비교표¹⁷⁾

| 연번 | 능호 | 피장자 | | 생몰연대 | 병 풍 석 | | |
|----|-----------------------|-------------|------------|-------------------|---------|--------|-----------------------------------|
| | | | | | 한변길이(m) | 형태(각) | 구 조 |
| 1 | 왕건왕릉 | 왕건 | 제1대왕 | 877~943 | 3 | 12 | 박석, 면석, 탕석, 갑석, 인석 ¹⁸⁾ |
| 2 | 온혜릉 | 원창왕후 | 왕건의 조모 | | 2.3 | 12(추정) | 화강암판석 2단 |
| 3 | 안릉 | 정종 | 제3대왕 | 923~949 | 2.8~3 | 12 | 박석, 면석, 탕석, 갑석 |
| 4 | 유릉 | 예종 | 제16대왕 | 1079~1122 | 2 | 12 | 박석, 면석, 갑석, 인석 |
| 5 | 지릉 | 명종 | 제19대왕 | 1131~1202 | | - | |
| 6 | 양릉 | 신종 | 제20대왕 | 1144~1204 | | - | |
| 7 | 능내리석실본 | 미상 | | | 1.16 | 12 | 화강석 12매 (추정) |
| 8 | 가릉 | 순경태후 | 제24대왕 원종비 | 1209~1236 | 1.1 | 8 | 화강석 8매 |
| 9 | 석릉 | 희종 | 제21대왕 | 1181~1237 | 1 | 8 | 화강석 8매 |
| 10 | 곤릉 | 원덕태후 | 제22대왕 강종비 | ?~1239 | 1.1 | 12 | 화강석 12매 |
| 11 | 흥릉 | 고종 | 제23대왕 | 1192~1259 | | - | |
| 12 | 고릉 | 제국대장공주 | 제25대왕 충렬왕비 | 1259~1297 | 3 | 12 | 박석, 면석, 탕석, 갑석, 인석 |
| 13 | 충릉 | 충정왕 | 제30대왕 | 1337~1352 | 2.8 | 12 | 면석, 갑석 |
| 14 | 현릉, 정릉 | 공민왕, 노국대장공주 | 제31대왕과 비 | 1330~1374, ?~1365 | 3.1 | 12 | 박석, 면석, 탕석, 갑석, 인석 |
| 15 | 서구릉 | 미상 | | | 2.8~2.9 | 12 | 박석, 면석, 탕석, 갑석 |
| 16 | 7릉떼 ¹⁹⁾ 1릉 | 미상 | | | | 12(추정) | 화강석 2단 |
| 17 | 7릉떼2릉 | 미상 | | | 3 | 12 | 박석, 면석, 탕석, 갑석, 인석 |
| 18 | 7릉떼3릉 | 미상 | | | 2.2 | 12 | 박석, 면석, 탕석, 갑석, 인석 |
| 19 | 7릉떼4릉 | 미상 | | | | 12 | 활석 여러단 쌓음 |
| 20 | 7릉떼5릉 | 미상 | | | 2.5 | 12 | 박석, 면석, 갑석, 인석 |
| 21 | 7릉떼6릉 | 미상 | | | 1.6 | 12 | 박석, 면석, 탕석, 갑석 |
| 22 | 7릉떼7릉 | 미상 | | | 2.4 | 12 | 화강석 |
| 23 | 고읍리1호 | 미상 | | | 1.8 | 12 | 박석, 면석 |
| 24 | 고읍리2호 | 미상 | | | | | 면석 1매만 잔존 |

15 『고려무덤발굴보고』에서는 왕건왕릉을 설명하면서 병풍돌시설(병풍석)의 기능을 봉분 위에 올려 쌓은 흙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막으며 릉의 위엄을 돋구고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하였다고 파악한다. 김인철 저, 2003, 『고려무덤발굴보고』, 백산자료원.

16 김은선, 2002, 「조선 후기 능묘 석인상 연구 - 17~18세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4.

17 『고려무덤발굴보고』(김인철 저, 2003, 백산자료원)를 참조하여 축조순서대로 나열하였다.

18 『고려무덤발굴보고』에서는 관련 용어를 밑돌(박석), "면돌(면석)", "모서리돌(탕석)", "씨움돌(갑석)", "당김돌(인석)"로 표현하였다.

19 7릉군(七陵群).

저 포기하는 부분과 유지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강도시기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병풍석을 간소화하였다’는 추정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다만 석릉과 가릉에서 보여지는 8각 구조물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희중(석릉의 피장자)은 폐위된 왕이었고, 순경태후(가릉의 피장자)는 태자비의 신분으로 죽었다. 왕 혹은 왕비와는 다른 예우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례절차 또한 이에 따랐을 것이다. 즉, 12에서 8로 간소화된 과정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8이라는 숫자의 구체적 의미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²⁰⁾.

2) 난간석

강화 고려왕릉에서는 대체로 난간석이 확인되었으나 난간석의 구조가 밝혀진 것은 능내리석실분이 유일하다. 능내리석실분 난간석의 구조는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사진이나 『고려무덤발굴보고』에서 확인되는

개성 소재 고려왕릉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대석주는 죽석의 각을 이루는 부분들에 세워지고, 동자석주는 큰 대석주 사이에 1개씩 세워졌다²¹⁾. 그러나 능내리석실분은 죽석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 동자석주를 세우고, 동서 양 끝에만 대석주를 세우는 구조이다. 즉 동자석주 및 대석주의 수량을 최소화하였고, 이는 왕릉 축조가 한층 간소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난간석의 규모를 보아도 전후시기와 비교하여 간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로 보면 동자석주는 강도시기 이전과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일부 높이가 30~40cm로 작은 것은 지표상 수치를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석주는 강도시기 전후로 수치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능내리석실분 출토 대석주가 100cm인데 반하여 강도시기 전후의 것은 대체로 지표상 드러난 것만 75~160cm으로 나타난다. 죽석 또한 100cm과 160~200cm으로 차이가 나며, 개성 소재의 것은 한

<표 5> 강화도 및 개성 소재 왕릉 난간석 비교표²²⁾

| 연번 | 능호 | 난간석(cm) | | | | | | | | |
|----|--------------|-------------|---------|--------|--------|-------|----------|------|-------|---------|
| | | 병풍석 - 난간 거리 | 한변길이 | 죽석 | | 대석주 | | | 동자석주 | |
| | | | | 길이 | 직경 | 가로 | 세로 | 흙 직경 | 가로 | 높이 |
| 1 | 왕건왕릉 | 100 | | 200 | 20 | 40 | 160 | 20 | 30 | 100 |
| 2 | 은혜릉 | 110 | | | | | | | 30 | 60 |
| 3 | 안릉 | 150 | 356 | | | 8각 | 117(지표상) | 13 | 4각 | |
| 4 | 양릉 | | | | | | | | 36 | 40(지표상) |
| 5 | 능내리석실분 | | | 50~116 | | 31~32 | 100 | 16 | 29~34 | 60~84 |
| 6 | 가릉 | | | | | | | | 36 | 90 |
| 7 | 석릉 | | | 140 | | | | | | |
| 8 | 끈릉 | | | 90~100 | | | | | | |
| 9 | 홍릉 | | | | | | | | 25 | 74, 75 |
| 10 | 고릉 | 100 | 350 | | 13.5 | 30 | 120 | 15 | 30 | 65 |
| 11 | 총릉 | 70 | 300 | | | | | | | |
| 12 | 공민왕릉(현릉, 정릉) | 120 | | | | | | | | |
| 13 | 서구릉 | 150 | 355(추정) | | 20(추정) | 30 | 90 | 21 | | 40 |
| 14 | 7릉때1릉 | 125 | 320(추정) | | | | 160(지표상) | 20 | | |
| 15 | 7릉때2릉 | 50 | 330 | 160 | 18 | 35 | 130(지표상) | 20 | 32 | 30 |
| 16 | 7릉때3릉 | 90 | 250 | | | 35 | 140(지표상) | 20 | | |
| 17 | 7릉때4릉 | 100 | 300(추정) | | | 30 | 50 | 15 | 25 | 30 |
| 18 | 7릉때5릉 | 70 | 300(추정) | | | 30 | 110(지표상) | 20 | | |
| 19 | 7릉때6릉 | 70 | | 190 | 15(방형) | 30 | 75(지표상) | 18 | | 35 |
| 20 | 7릉때7릉 | 50 | 260 | | 15 | 45 | 75(지표상) | 18 | | |
| 21 | 고읍리1호 | 30 | 210 | 170 | 27 | 42 | | 23 | | |
| 22 | 고읍리2호 | 30 | 210 | | 25(추정) | 30~35 | 160 | | | |

20 8각은 원을 구획할 때 가장 균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각이며, 불교에서도 원당의 개념으로 8각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21 『고려무덤발굴보고』 (김인철 저, 2003, 백산자료원)에서는 “큰기둥돌(대석주)”, “작은기둥돌(동자석주)”, “돌난간(죽석)”으로 표현하였다.

22 김인철 저, 2003, 『고려무덤발굴보고』, 백산자료원

면에 2개씩 죽석을 돌리는 경우도 확인된다.

난간석에는 문양이 조각된 것으로 보아 봉분을 보호하는 역할 외에 장식적 기능도 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내리석실분 출토 동자석주는 문양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형태는 사각기둥으로 상부에 죽석을 끼울 수 있는 원통형의 홈을 마련하였는데, 상부 1면이 모두 결실되어 확신할 수는 없으나 바깥쪽으로 향하는 면은 운문을 조각하고 봉분쪽으로 향하는 면은 문양을 조각하지 않거나, 문양을 단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추가자료 확보가 어려우나²³⁾ 능묘제의 기본 사상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석인상은 석물 중에서는 그나마 활발히 연구된 부분이다. 강도시기 4기의 왕릉에서 확인된 석인상은 모두 사각기둥형태로 하체의 표현이 거의 없고 얼굴조각에만 신경을 쓴 중기의 특징²⁴⁾을 가지고 있다. 석릉 석인상은 제일 작고 마모가 심하여 형태파악이 힘들고, 가릉 석인상은 조각이 보다 뚜렷하며 4등신 정도의 비례로 보다 사실에 가깝다.

가릉 석인상은 깃이 둥근 단령을 입고 흠을 들고 있는데, 공민왕릉 및 조선왕릉 석인이 흠을 턱 아래 바로 붙이고 오른손을 왼손 위로 겹치게 흠을 잡고 있는 것과 다르게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하여 비스듬하게 들고 있다. 이는 홍릉 석인상도 똑같다. 머리에 쓴 관모는 가릉, 곤릉 석인상은 납작한 형태의 것으로 공민왕릉의 것과 차이가 있다. 형태상으로 와룡관과 비슷하며, 일본 정가당문고미술관 소장 지장시왕도로 볼 때 양관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²⁵⁾. 홍릉 석인상은 복두를 착용하였으며 이는 공민왕릉에서 보여지는 뚜렷한 도상적 특징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홍릉부터 발

생한 도상적 특징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²⁶⁾.



〈사진 22〉 일본 정가당문고 미술관 소장 지장시왕도
(『고려시대불화』, 교문사, 2002, 『개정판 복식문화사』)

또한 〈표 6〉을 보면 개경환도 이후 축조된 왕릉의 석인상은 200~300cm로 강도시기의 것보다 훨씬 크다. 이는 강도시기의 어려운 정치·경제적 상황이 능묘에 필요한 석물을 조성하는데 제약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도시기 이전의 석인상 중 크기가 파악되는 것은 지릉과 양릉으로 피장자가 모두 무인집권기에 용립된 왕들이다. 크기는 강도시기의 것과 비슷하나, 당시 왕권이 약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강도시기 이전의 대표적 사례로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석수는 가릉에서 2기, 능내리석실분에서 2기, 곤릉에서 1기가 확인되었으며 종류는 다양하다. 가릉에서 확인된 석수는 석호(石虎), 곤릉은 석양(石羊), 능내리석실분은 석구(石狗)로 추정된다. 원래 석수는 8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4기로서 대개 석구(石狗)의 형식을

23 『고려무덤발굴보고』(김인철, 2003, 백산자료원)는 안릉(정종릉) 난간석의 형태가 간략히 언급한다. 석주는 윗부분을 꽃봉오리모양으로 가공하고 동자석주는 죽석을 받칠수 있게 오목하게 가공하였다.

24 『한국 문인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석인을 초기(10세기), 중기(11~13세기), 후기(14세기)로 분류하여 초기엔 통일신라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퇴보되고 중기에는 장식처럼 하체가 거의 생략되어졌으며 후기에는 문인석, 무인석이 제도나 형태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어 사실적이고 매우 유려한 형태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김성희, 1985, 『한국 문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25 지장시왕도에서는 단령을 입고 양관 및 복두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흠을 드는 방식도 가릉 석인상과 같이 두손이 겹치지 않게 흠을 비스듬하게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26 이와 관련, 고려시대에는 복두가 애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도경에서는 문관들이 관복은 1품에서 9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복두를 썼다고 하며, 고종39년에는 왕이 특히 최항의 창두에게 복두쓰는 것을 허락하면서 이후 일반 관세있는 양반의 가노들까지도 모두 쓰게 되었다고 한다. 유희경·김문자, 2002, 『개정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띠고 있다. 고려말에 이르러 호석(虎石), 양석(羊石)의 2종류로 나누어졌다고 한다²⁷⁾.

개경환도 이후에 축조된 고릉, 공민왕릉의 경우 범과 함께 양이 같이 조각되었으며 이전 시기의 것들은 범 하나만 조각된 것으로 보인다. 즉, 석호가 능역에 배치되다가 후에 석양이 새롭게 채용되었으며 1239년에 축조된 곤릉에서 석양이 확인된 것은 적어도 이 시기부터 양석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범과 양이 각각 북, 남으로 구분되어 배치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석수가 의미하는 방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능내리석실분은 출토도자의 성격 및 가릉과의 배치상, 13세기 전반에 축조된 가릉과 곤릉보다 앞선 시기로 추정된 바 있는데²⁸⁾, 석수의 양상도 비슷한 흐름을 갖는다. 가릉과 곤릉에서는 석호와 석양이 확인되었으며 사각기둥의 형태로 평면화된 조각이다. 그러나 능내리석실분은 석호와 석양의 이전단계인 석구의 형태로 둥근 입체감이 살아있는데, 고려말에 점점 조각성이 약화되고 사각기둥 구조로 바뀌어가는 흐름과 맞는다²⁹⁾.

또다른 능내리석실분 석수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봉분 북동편에 위치하는 석수는 형태가 석호나 석양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머리 가운데에 반달형의 홈이 파여진 것으로 보아 뿔이 표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상의 동물인 해태(□彫)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석호, 조선시대) 석수에서도 비슷한 도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호랑이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사진 23〉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석수

〈표 6〉 강화도 및 개성 소재 왕릉 석인상 비교표³⁰⁾

| 연번 | 능호 | 석인상(cm) | | | |
|----|--------------|----------|----|----------|------------------------|
| | | 종류 | 개수 | 사이거리 | 크기 |
| 1 | 왕건왕릉 | 문관상 | | 1060 | |
| 2 | 지릉 | 문관상 | 1 | | 150×60 |
| 3 | 양릉 | 문관상 | 2 | 700 | 180×46×38 |
| 4 | 가릉 | 문관상 | 2 | | 163, 166×42, 44×24 |
| 5 | 석릉 | 문관상 | 2 | | 138, 115×59, 68×39, 40 |
| 6 | 곤릉 | 문관상 머리 | 3 | | |
| 7 | 홍릉 | 문관상 | 4 | | 110~130×33~49×19~24 |
| 8 | 고릉 | 문관상 | 3 | 750 | 345×70×35 |
| 9 | 총릉 | 문관상 | 4 | 700, 780 | 200×70 |
| 10 | 공민왕릉(현릉, 정릉) | 문관상, 무관상 | 8 | | 300 |
| 11 | 서구릉 | 문관상 | 2 | | 198×66×36 |
| 12 | 7릉때2릉 | 문관상 | 2 | 850 | 210×60 |
| 13 | 7릉때3릉 | 문관상 | 4 | 690 | 225×60 |
| 14 | 7릉때4릉 | 문관상 | 2 | 700 | 128×34 |
| 15 | 7릉때5릉 | 문관상, 무관상 | 4 | | 200, 210×50 |
| 16 | 7릉때6릉 | 문관상 | 4 | 440 | 168×50×40 |
| 17 | 7릉때7릉 | 문관상, 무관상 | 4 | 800 | 210, 235×60 |
| 18 | 고읍리1호 | 문관상 | 2 | | 180×46 |
| 19 | 고읍리2호 | 문관상 | 2 | | |

27 고유섭, 1993, 「고려왕릉과 그 형식」, 『고유섭전집』 4 송도고적 - 29, p.270.

2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p.467.

29 김성희, 1985, 「한국 문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p.40.

30 김인철 저, 2003, 『고려무덤발굴보고』, 백산자료원

〈표 7〉 강화도 및 개성 소재 왕릉 석수 비교표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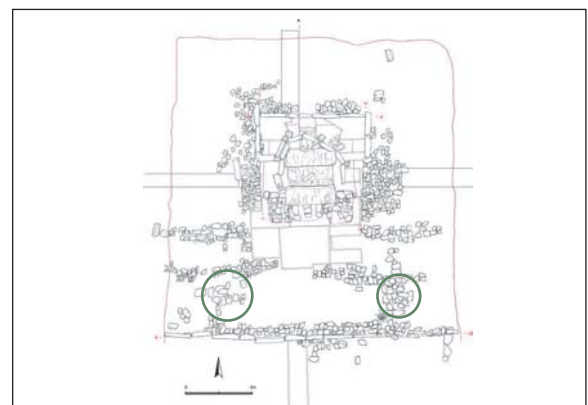
| 연번 | 능호 | 석수(cm) | | | | | |
|----|--------------|------------|----------|------------|--------|--------------|--------|
| | | 종류 | 개수 | 난간석 - 석수거리 | 너비 | 길이 | 높이 |
| 1 | 왕건왕릉 | 범 | 4 | 70~100 | | | |
| 2 | 온혜릉 | 범 | 1 | | | | |
| 3 | 안릉 | 범 | 3(북, 동남) | | | | |
| 4 | 능내리석실분 | 개, ? | 2 | | | 35~44, 26~34 | 90, 94 |
| 5 | 가릉 | 범 | 2 | | 30, 28 | 32, 33 | 83, 94 |
| 6 | 곤릉 | 양 | 1 | | | | |
| 7 | 고릉 | 범, 양 | 2(남) | | 30 | 65 | |
| 8 | 공민왕릉(현릉, 정릉) | 범, 양 | 8 | 100 | | | |
| 9 | 서구릉 | 범 | 3(4) | | | 105 | 50 |
| 10 | 7릉떼1릉 | 범 | 6(8) | 70 | 50 | 70 | 100 |
| 11 | 7릉떼2릉 | 범 | 3 | 30 | 40 | 80 | 60 |
| 12 | 7릉떼3릉 | 범(북), 양(남) | 4 | 50 | 40 | 130 | |
| 13 | 7릉떼4릉 | 범(북), 양(남) | 4 | 70 | | 100 | 50 |
| 14 | 7릉떼5릉 | 범 | 3(4) | | | | |
| 15 | 7릉떼7릉 | ? | 3 | | | | |
| 16 | 고읍리1호 | 범 | 3(8) | 20 | 30 | 60 | 100 |
| 17 | 고읍리2호 | 범 | | | 30 | 50 | 78 |

석등은 통일신라시기 8각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고려 시대에 방형의 석등도 등장하였으며³²⁾, 가릉·곤릉·능내리석실분에서 수습한 것은 모두 방형으로 연주문 및 복련이 조각된 것도 확인된다. 크기 및 양식은 개성소재 왕릉 관련 석물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단 왕릉 1기에 1기의 석등이 설치되는 예로 볼 때, 곤릉에서 출토된 다음 어지지 않은 하대석은 망주석의 대석일 가능성이 있다.

4) 난간석, 12각호석, 석수, 석인의 배치관계

석물이 석실을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배치된다는 부분은 앞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배치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많지 않은데, 능내리석실분 봉분 상부 토층조사에서 난간석과 12각 구조물(호석), 석수, 봉분을 에워싸는 곡장의 배치관계가 일부나마 밝혀졌다. 곡장 하부 할석군은 2개의 토층에 물려 있으며 아래 토층을 굴광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곡장을 축조하기 위해 할석을 깬 다음, 할석이 물려있는 층을 굴광하고 동자석주를 설치한 후, 곡장에 할석을 추가로 1단 올린다. 할석군 위로 장대석을 올려 곡장을 축조한 다음 할석군과 동자석주의 머리 아래까지 덮이도록 성토한 것으로 보

인다. 봉분 남동편 북벽토층에서는 12각(추정) 장대석과 곡장간의 관계가 확인된다. 석실규모로 굴광하고 석실을 안치한 후, 주변을 흙으로 보강하는 과정에서 곡장을 이루는 부정형할석을 축조한다. 석실상부에 위치하는 장대석 안쪽으로 내부 봉토를 쌓아올리고 바깥으로는 사립이 섞인 황갈색사질점토와 황적색사질점토를 호석으로 기울게 장대석의 2/3정도까지 덮이도록 판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2〉 능내리석실분 석실 평면도

31 김인철 저, 2003, 『고려무덤발굴보고』, 백산자료원

32 석등의 기본형은 하대석(下臺石)·중대석(中臺石, 竿石 혹은 竿柱라고 함)·상대석(上臺石)을 기대(基臺)로 삼고, 그 위에 등불을 직접 넣는 화사석과 옥개석을 얹으며, 정상부를 보주(寶珠) 등으로 장식하는 형식이다. 통일신라시대 8각 석등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석사무량수전암석등(浮石寺無量壽殿-石燈, 국보 제17호)이 남아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신라시대의 8각평면의 전형양식에서 벗어나 방형평면의 새로운 양식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관촉사석등(灌燭寺石燈, 보물 제232호)과 현화사석등(玄化寺石燈)은 이러한 양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간주는 원형평면이고, 그 위에 4각형의 양련석을 얹었으며, 화사석은 네 귀에 석주만을 세우고 방형의 옥개석을 덮었다. “석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석수의 배치는 앞 장의 능내리석실분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는데, 개성 소재 고려왕릉과 대략 일치한다. 대부분 유실되어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난간석 밖으로 봉분을 중심으로 북서, 북동, 동서, 동남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능내리석실분이 난간석과 석수가 바로 붙어있는 반면, 왕건왕릉은 난간석으로부터 0.5~1m 떨어진 지점에 석수가 위치한다. 이는 능역 규모를 축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석수와 난간석의 간격도 좁아진 것으로 보인다.

석인상 배치와 관련, 능내리석실분에서는 판판한 판석을 사용한 적심석군이 석실 전면에 동서 양쪽에서 확인되었다(그림 12). 개성 소재 고릉에서 석인상 하부에 평평한 받침돌을 깔거나 끼울 수 있는 홈을 마련하였다는 언급으로 보아 석인상이 위치한 곳으로 보이며 간격은 10m이다.



(사진 24) 능내리석실분 난간석 주변 토층상황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V. 마치며

본고는 석릉, 가릉, 곤릉, 홍릉, 능내리석실분을 중심으로 강화 고려왕릉의 석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강도 시기에 조영된 5기의 왕릉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석실축조 및 능역 조성 등에 있어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었고, 이는 당시 규범화된 왕릉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석물 역시 왕릉제도 아래 정형성을 가지고 제작·배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후시기와 비교하여 볼때 구조적 혹은 도상적 측면에서 변화된 양상이 확인된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구조의 간소화 및 규모의 축소이다. 갑석, 탕석 등의 구조를 가진 병풍석은 12각 혹은 8각 호석으로 퇴화된 것으로 보이며, 난간석은 동자석주와 대석주의 개수를 최소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간소화되었다. 석인상은 크기는 개경환도 이후의 것에 비해 두드러지게 작다. 능내리석실분 토층조사에서 확인되듯 강도시기 왕릉의 호석, 난간석, 석수의 배치관계도 살펴볼 수 있는데, 강도시기 전후와 대체로 일치하나 공간확보에 있어 소규모화 되었다.

도상에도 변화가 보인다. 석호만 배치되던 왕릉에 강도시기부터 석양이 채용되었고 개경환도 이후로도 석양과 석호의 2종류의 배치가 이어진다. 또한 강도시기 말 홍릉의 석인상에서는 이후 시기에서 확인되는 관모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공민왕릉과 신라왕릉의 석물과 비교할 때 불확실한 도상과 치졸한 조각수준도 보인다. 석수, 석인은 사실적인 묘사가 아닌 사각기둥 형태에 팔과 손을 단순한 선각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추상화, 평면화된 느낌이다. 그러나 강도시기 외 고려왕릉 관련 석물의 사진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강도시기의 특징인지, 아니면 고려시대 전체의 특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³³⁾.

이상과 같은 석물의 특징에는 고려시대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고려왕조는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무신정권 및 잦은 외침에 의해 왕권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강도시기는 몽고침략으로 인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상황이었다. 당연히 왕릉을 조성하는 인력 및 물자 공급 등에 제약을 받았을 것이며, 이는 간소화된 왕릉제도로 연결된다. 이후 왕권을 회복한 공민왕대에 조성된 현정릉의 규모와 석물의 정교함으로 미루어 보아도 석물이

33 관련논문에는 이마니시류(今西龍)가 조사한 「조선고적도보」에 수록된 개성 소재 왕릉들의 사례로 볼 때, 조각수준의 조약함 및 왕릉구조의 단순화는 비단 강도시기의 특징이 아니라 고려왕조 전 시기의 특징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다. 즉 고려시대에는 능묘수식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다만 강도시기에 간소화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이경순, 1995, 「조선전기 능묘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34 석물이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음은 김성복의 논문에서도 문인석을 그 대상으로 삼아 밝힌 바 있다. 15세기 태조부터 세종대나 18세기 말의 영정조대의 문인석은 사실적이고 입체감을 지니고 있으나 임진왜란 직후 사회 혼란기에는 형식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즉 호석구조의 발전 및 쇠퇴와 석물배치의 증가 및 소멸은 정치사의 발전 및 쇠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김성복, 1992, 「조선시대 문인석에 관한 연구-왕릉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왕릉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³⁴⁾.

물론 앞서 파악한 석물은 훼손이 심하여 원 상태가 확인이 어려웠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향후 추가될 개성 소재 고려왕릉 등의 편년자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왕릉의 구조와 석물의 관계를 강조하고 싶다. 이는 석물이 능의 구성물로서 차지하는 비중과도 관련이 있다. 석물의 역할은 1차적으로는 호석으로서 능을 수호하고, 2차적으로는 피장자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의장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석물은 왕릉에 있어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이나 역으로 석실을 보호하고 피장자의 위치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석물은 왕릉 구조의 일부이다. 난간석 및 12각 호석과 같은 호석구조는 구조적 특징이 특히 강한 석물이며, 석인, 석수 모두 왕릉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이다. 석릉에서 확인되는 부석시설 및 석실천장석, 벽석 등의 구조물도 넓게는 석물로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석물은 보다 넓은 의미로 왕릉 구조라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도상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소략적으로 석물을 소개하는데 그쳤으나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희, 1985, 「한국 문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찬우, 1986, 「조선시대 문무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경진, 1987, 「조선전기 왕릉 및 석조물 양식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복, 1992, 「조선시대 문인석에 관한 연구 - 왕릉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순, 1995, 「조선전기 능묘석인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애, 2001, 「개성 공민왕릉 석인상 연구」, 『강좌미술사』 제17호
- 김은선, 2002, 「조선후기 능묘 석인상 연구 - 17~18

세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광철, 2005, 「조선시대 왕릉의 석인 석수 조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근직, 2006, 「신라왕릉의 기원과 변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강화석릉』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강화고려왕릉』
- 고유섭, 1993, 「고려왕릉과 그 형식」, 『고유섭전집』 4 송도고적-29
- 今西龍, 대정5년(1916), 「고려제릉묘조사보고서」, 『조선고적조사보고』, 조선총독부
- 김인철 저, 2003, 『고려무덤발굴보고』, 백산자료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유희경 · 김문자, 2002, 『개정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A Study on Stone Figures of the Goryo Royal Tomb Placed in Ganghwado

Han, Na La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Received : 25 August 2008 / Revised : 25 September 2008 / Accepted : 10 October 2008]

Abstract

Since now, the study on the Goryo royal tomb has been insufficient because of the realistic restriction. Goryo royal tombs are mostly located in Gae-sung, the capital of the Goryo Dynasty and we don't have possibility to see them actually. And also the Study on stone figures which has been closely related with the structures of the royal tomb has limited in Unified Silla and the Choson Dynasty period.

So in this paper I have examined Stone figures of the royal tomb in Gangdo period with the target on five Goryo royal tombs of that period.

I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royal tomb system in Gangdo period was more streamlined than that of the previous period. For example, facilities such as the railing stone or a folding screen stone were simplified. And sculpture Came to be smaller than after that perial. Also Icon of sculpture changed. It is presumed that this change was because of the anxious situation of Gangdo period with politic and social.

KeyWords : Stone figures placed before a tomb, Gangwhado, the Goryo royal tomb